해외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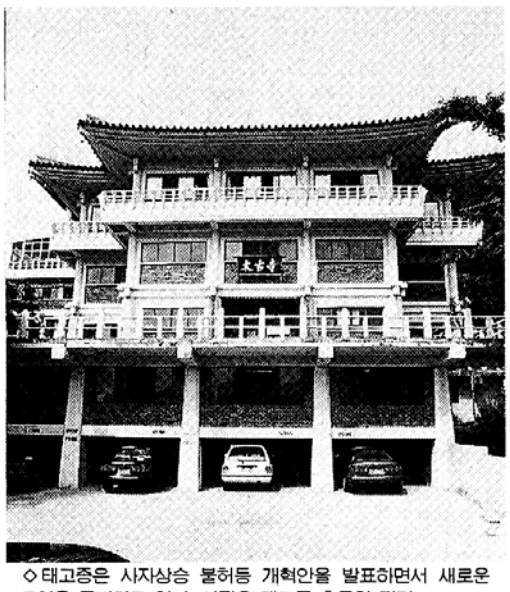
佛典 영역화 추진 日本 불교전도협회

불교를 전세계에 전하기 위해 불교전도협회(회장 누마다)에서는 영역대장경 출판사업을 계획, 대정신수대장경 및 불전의 영역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역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간행된 '팔종강요(八宗綱要)'와 '말법등명기(末法燈明記)'에는 구사종 성실종 법상종 등 종명의 유래와 근거부터 선종과 정토종의 설명까지 첨가되어 있다.

전 도가이(東海)대학의 이시다(石田)교수는 "불교를 세계에 널리 전하기 위해 발족된 불교전도협회의 불전과 대장경의 영역사업은 일본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수의 개론서로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고 대장경 영역사업의 뜻을 밝혔다.

태고종 거듭나기 '바쁜 걸음'

사자상승불허·사찰수입 10% 납부등 개혁안 발표
선암사 불학대학 설립·총무원 봉원사 이전 발의도



◇ 태고종은 사자상승 불허등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태고종 총무원 전경.

종단 재건을 위한 한국불교 태고종(총무원장 서봉스님)의 개혁 발걸음이 본격화됐다.

태고종은 지난 9일 총무원 설법전에서 '종단중흥발전특별위원회(이하 종발위) 공청회'를 갖고 종발위가 발의한 개혁안을 오는 23일 열리는 제 70회 임시중앙종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종발위는 "전통종단으로서 위상을 회복하고 21세기를 선도하는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총체적인 체질개선이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총무, 교육, 재정, 교화분과별 세부개혁안을 밝혔다.

종발위가 제안한 종단현실타개 실천방안에 따르면 △전래의 기성사찰 운영을 실질적으로 공유화해 사자상승(師資相承)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찰수입의 10%를 종단분담금으로 납부 △선암사에 불학대학 설립 △총무원을 봉원사로 이전해야 한다고 발의했다.

특히 분담금은 그동안 보시형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중생들의 시주은혜에 보답하는 불은세(佛恩稅)개념으로 전환, 반드시 납부하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신도 고부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승려의 '선교육 후득도제'를 채택, 4~6년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승려자격을 부여하고 기성승려는 매년 20일 이상의 연수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종단의 새로운 기풍조성을 위해 종명을 한국 불교 조계종으로 '복귀'하고 성직자를 출가승려와 재가승려로 구분하여 2원화 하자는 안을 내놓았으나 공청회에서 논란이 제기되어 종회안건에서 제외됐다.

이번 종발위 개혁안은 지난 1월 각 교구별로 선출된 69명의 특별위원회 위원이 6차례의 총회와 분과토의를 거쳐 6개월만에 수립됐다.

윤자월 총무부장스님은 "40년간 지속된 종단운영의 폐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종도의 여론에 따라 종단개혁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종회를 거쳐 수립된 개혁안을 따르지 않는 사찰이나 승려는 기득권을 박탈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겠다"고 밝혔다.

태고종 개혁안은 금번 중앙종회의 승인을 받은 후 법령개정소위원회를 구성, 종헌종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태고종 종발위가 제안한 개혁안에 대해 일부 소속사찰에서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찰재산의 사자상승 불허와 분담금납부 등을 강행할 때 종단의 분열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준엽 기자

방송 하이라이트

btn ch32

공동체의식 다지는 기회

TV 신행상담 (22일, 11:10~12:00) '더불어 사는 삶' 편에서는 아직도 끈끈히 이어져오고 있는 공동체의식 속에서 참우리를 찾는 시간을 마련한다.

학림사팀 2승도전

퀴즈특급! 이뭐꼬? (23일, 11:10~12:00) 조계사와 1승의 학림사의 숨막히는 대결이 벌어지는데, 과연 학림사는 이 막강한 도전팀을 이길 수 있을지….

이원섭선생의 저술인생

나의 삶 나의 불교 (24일, 11:10~12:00) 이원섭 선생은 만해스님의 불교대전을 번역한 일부터 시작해서 생명력있는 화두의 세계를 열어보인 깨침의 미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불교서를 번역, 저술했다. 6. 25당시 소총을 잡기위해 법화경을 버려야 했던 기막힌 사연을 들어본다.

당 태종 역경사업 후원약속

삼장법사 현장 (24일, 12:30~13:20) 현장스님은 고국인 당나라를 떠난지 17년만에 경전을 가지고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온다. 태종은 현장스님을 뵌 뒤 그의 학덕에 감탄하여 역경사업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할 것을 약속한다.

BBS
FM 101.9MHz(서울) FM 89.9MHz(부산) FM 89.7MHz(광주)

건국대 성태용교수 강의

오늘을 이끄는 물교 (19일 11:05~11:20) 건국대 철학과 성태용 교수가 '불교와 동양철학'을 강의한다.

광역단체장 선거분석

생방송 천수천안 (21일, 16:10~16:40) 지자제 선거분석 시간으로 15개 광역단체장 선거를 보도국 김정특기자와 분석해 본다.

지자제시대 환경대책

환경패트롤 (24일 14:10~15:00) 지자제를 맞아 불교계의 환경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는 시간.

불방 어머니합창단 찬불

우리들의 찬물가 (25일 15:05~15:45) '열반으로 피어난 연꽃' '꽃으로 앉으신 님'을 불교방송 어머니합창단과 함께 배워본다.

방송가 소식

'btn방' 가입자에 개방

불교TV의 'btn 방'이 두달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설, 일반 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btn 방에는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자비의 천수천안,TV신행상담) △btn 게시판(불교TV가족에게) △프로그램 안내(특집프로, 방송날짜별로 찾기) △btn 광장(행사안내, 불교TV에 바란다)이 있다. HITEL에 들어가서 Go btn을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제주 약천사 다큐제작

불교TV 영상사업부는 64만여평에 1백8만불 봉안과 단일법당으로는 동양최대불사가 진행중인 제주 약천사 현장을 담은 기획다큐물을 6월말부터 11월까지 제작할 계획이다.

부산 btn 주식설명회

불교TV 부산지사는 지난 14일 오후 7시30분 국제호텔에서 2차주식공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지역 2백여 불자들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태응스님(불교텔레비전 사장)은 주식공모를 직접 설명하면서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동참해 줄것을 당부했다.

시청 불가능땐 보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케이블 TV 가입자가 방송사측의 사정으로 방송을 시청하지 못할 경우 최고 한달 수신료 전액을 면제한다'는 약관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5일 이상 방송이 중단되거나 결방일수 7일이상인 경우 전액 면제되고 이외에 결방될 경우 일수에 하루분 수신료를 곱한 금액만큼 감면받게 된다.

낙동강 살리기 특집

불교방송은 오는 23일 오후 7시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낙동강 살리기 특집공개방송을 대구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개방송은 김홍국씨의 진행으로 The Blue, DJ DOC, 녹색지대, 강산에, 신효범, 변진섭 등이 출연한다.

자문·운영위원 등 임명

불교부산방송은 지난 14일 크라운호텔 '동백홀'에서 자문, 운영, 시청자위원등 82명을 선임하는 위촉법회를 봉행했다.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자문위원에 흥교스님(신흥사 조실) 등 11명, 후원회(승가)에는 보경스님(태고종 부산종무원장)등 35명, 운영위원회는 정관스님(범어사 주지) 등 23명, 시청자위원회에는 이춘기교수(부산대) 등 13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상임위원에 각성·원담·정일스님

충북 불방개국 준비위

청주와 대구지역의 불교방송 지방국추진이 가속화 되고 있다.

충북준비위는 지난 12일 청주지역 이사회를 개최하고 공식명칭을 '충북불교방송추진위원회'에서 '충북불교방송 개국준비위원회'로 변경하고 새로운 상임위원에 각성스님(태고종 보타사), 원담스님(법주사 교무국장), 정일스님(전 법주사 주지)을 임명했다.

충북준비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본사 설명회와 개국준비위 1차회의까지 실사팀을 구성하여 본사, 대구, 광주방송을 방문, 의견을 청취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앞서 대구지역은 지난 11일 대구·경북지역 5개본사 회의에서 지방국허가 설명회를 갖고 불교대구방송 설립추진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지역은 5개 본사를 주축으로 해인사, 진각종, 대구사암련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진불사 13일 봉행

진각종 신촌심인당

진각종 신촌심인당(주교 휴명대정사)은 지난 13일 지광통리원장 도흔교육원장을 비롯 스승 및 교도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지진불사를 봉행했다.

서울 창천동에서 서교동으로 이전신축하게 될 이번 불사는 총3백여평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인 심인당과 요사체 부속건물을 갖추고 오는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진각종은 지난 14일 진기 49주년 창교절을 맞아 탑주 심인당을 비롯 전국 각 심인당에서 창교이념을 되새기는 기념불사를 봉행했다.

포교사 교육실시

총화종 칠봉사서

총화종(총무원장 김법은)은 지난 15일 경기도 북부종무원주최로 의정부 칠봉사에서 95년도 포교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포교사교육은 총무원장 스님의 불교기초교리강좌, 법의해설, 전남정 선거관리위원장의 포교사의 역할, 심경강의에 이어 충남종무원장의 종무현황 강의로 진행됐다.

목탁소리

태고종 개혁의 앞날

이 준 엽 〈취재1부 차장대우〉

지난 1월에 구성된 태고종 종단중흥특별위원회가 최근 종단재건을 위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 개혁안은 사유화된 종단조직, 재산을 공개념으로 바꾸고 승려교육과 사회에 부응하는 사업전개를 골격으로 하고 있다. 21세기를 앞둔 시대상황에서 태고종 발전을 위해 제시한 종발위의 개혁안은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종발위의 개혁안 발의과정을 살펴보면 총무원이 일방적으로 주관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주고있다.

종발위는 총무원과 중앙종회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교구별로 3명씩 위원이 선출되어 탄생했다. 어느 때보다도 종도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종발위는 분과별로 나뉘어 활동을 펼쳤다. 그런데 수차례의 회합이 있었지만 종도의 여론을 수렴하기보다는 이미 총무원에서 마련한 안건을 논의하는 단계에 그쳤다는 것이 종발위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한 23일 열리는 중앙종회에 개혁안승인의 건이 안건으로 채택되어 있지만 아직도 지방종회에서는 개혁안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혁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종회는 결국 거수기 역할만 하는 의례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총무원 관계자들은 "이번에 추진하는 개혁안은 종단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전제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찰이 5백개만 되더라도 종단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 사실사암으로 이루어진 태고종은 종발위가 발의한 '사자상승 불인정, 분담금납부' 등의 개혁이 실시될 경우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다시 종단분열을 예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개혁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화합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일부 기득권자들의 주도아래 일방적으로 '나를 따르라'는 식의 개혁은 많은 위험을 내포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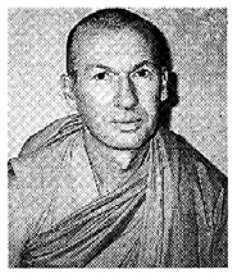
태고종은 40여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분열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역, 문중간의 이해관계와 사찰재산권문제로 10여차례 군소종단으로 갈린 것이다.

2천여 사찰의 행보는 더이상 책임지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태고종은 개혁의 성공여부에 앞서 또다시 분열의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불교역사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개혁 주체세력들의 심사숙고를 기대해 본다.

인터뷰

수 와지라 스님



"인도 하층민 돕기에 한국불자 자비를"

인도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 와지라스님(영국인, 42)이 자선기금 모금을 위해 방한했다. 서양불교승가회(Western Buddhist Order)에 소속돼 있는 스님은 지난 78년부터 인도에 머물며 불가촉천민등 인도 하층민들에게 의료와 교육사업을 펼치며 불교도로 개종시키고 있다.

영국과 대만 등을 돌며 자선기금을 모금해 온 수 와지라스님은 "삼촌이 한국전에 자원 참전했다"며 그래서 한국은 오래전부터 와 보고 싶은 나라였다고 밝게 웃는다.

비구니회에서 2백여만원, 정우스님이 4백만원, 일면스님이 2백만원, 이화불교사 10만원 등 한국불자들의 정성어린 보시가 고맙기 그지없다는 수 와지라스님은 오는 29일 인도로 돌아간다.

도움주실 분 (02)703-6792

생전 예수재 및 水子靈 천도를 위한

백일미타기도봉행

수자영가의 천도를 발원하여
이 세상에 자비의 몸을 나투신 수지지장보살(사본용)

대원사는

백제 무녕왕 3년(서기 503년) 아도화상이 창건한 백제 고찰입니다.

수자지장보살(水子地藏菩薩)을 봉안하고 수자영가의 천도를 기원해온 대원사에서는 수자영가의 천도 및 생전 예수재를 위한 제4차 100일 미타기도를 봉행합니다.

수자령이란 부모와 인연은 맺어졌지만 이 세상의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불쌍한 어린 영혼들을 말합니다.

수자영가의 천도를 봉행하는 목적은 첫째, 씻을 수 없는 부모의 죄업을 참회하여 안정과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고 둘째, 전생과 금생의 나쁜 인연을 소멸시켜 삶의 고통과 장애로부터 벗어나며 셋째, 원결 맺힌 영가들을 해탈시켜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며 넷째, 불보살의 큰 서원에 의탁하여 대승의 마음 일으켜 삶의 고통과 죄업에 몸부림치는 이웃들의 다정한 벗이 되어 보살의 삶을 실천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금년(을해년) 윤달을 맞아 예수재 의식을 봉행합니다.

생전 예수재(生前 預修齋)란 자신의 사후(死後)에 행할 49재의식을 생전에 미리 닦는 불교의 전통의식입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입시공부를 하듯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모든 인간들은 예수재를 통하여 미리 죽음의 세계를 공부해야 합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다시 태어남, 그 중간에 위치하는 중음(中陰)의 단계에서 해탈의 길을 인도해주는 티벳불교의 성전, 중음천도밀법(中陰滅度密法:BARDO THODOL)의 의궤에 의지하여 예수재 의식을 봉행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한 최고의 성전 사자(死者)의 서(書)는 생전에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이 경전을 듣는 것만으로 해탈을 할 수 있다는 부사의한 경전입니다.

금번 대원사에서 처음으로 봉행하는 생전 예수재 의식에 함께 동참하시어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나는 일.'이라는 삶의 진실을 깨닫고 삶의 집착에서 오는 고통과 재앙의 매듭을 풀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공덕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아! 너는 너의 의사에 반(反)하여 죽는구나.
죽음이 무엇인지를 배우지도 못하고서
죽음을 배울지니라. 그러면 그대는 삶까지도 배우게 될 것이니라.
죽음을 배우지 못한 자는 삶까지도 배울 수 없게 될 것이니라. (티베트 死者의 書)

수자영가의 천도 및 생전 예수재에 동참하신 분에게는

① 사후세계를 소상히 밝혀 놓은 소책자 「중음천도밀법(中陰薦度密法)」
② 염불신앙의 길잡이 「염불신행요전」
③ 기도용 지장보살 사진
④ 사경과 사불을 위한 반야심경과 지장보살 체본
⑤ 백일기도를 위한 일일 수행법과 영가축원문 등을 우송해 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 1995년 5월 14일(입재) ~ 1995년 8월 20일(회향)
- 동참회비 : ① 수자령 천도 : 기도금(3만원) 영가 1인당(5천원)
  ② 생전 예수재 : 기도금(5만원)
- 연 락 처 : 546-840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
  전화 (0694) 52-1755 · 팩스 (0694) 53-0009
- 온 라 인 : 조흥은행 322-06-008780 (석현장)

지장보궁 염불선 도량 대원사
주지 석 현 장 합장

1박 2일 출가생활

대원사 주말 수련회

염불선 수련도량 대원사에서는 재가불자들의 올바른 신행을 위해 '맑고 향기롭게'란 수련 주제로 아래와 같이 1박 2일의 단기출가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성을 맑혀 향기로운 삶을 이루기 위한 대원사 주말수련회에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아래

- 일 시 : 매주 토요일 5시~일요일 2시(10명 이상 단체 환영)
- 수련내용 : 염불명상법, 선체조, 자비관, 관정기도, 육근참회, 백만편 염불, 사경, 티벳불교 명상법
- 수련지도 : 현장스님 ■회비 없음
- 교 통 편 : 광주고속버스터미날에서 117번, 217번 시내버스 타고 (사평종점 하차) 대원사까지 택시(혹은 군내버스)